2020 채점규칙

선수・지도자의 책무와 추가 감점

(2019. 11. 28.)

남자 심판위원회

□ 목적

- 국제체조연맹 채점규칙과 체조경기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체조환경을 국제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선수, 지도자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중시하는데 있다.

□ 선수 행동 등과 관련된 감점들(0.3감점)

- 체조선수는 유니폼 정면(가슴 위치)에 시도나 팀의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등 뒤에 조직위에서 배포된 백넘버를 착용해야 한다.
- 체조는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. 예시; 반지, 목걸이, 귀걸이 등의 착용을 금하고 두발은 단정하게 한다. 문신이 있을 경우 최대한 가리고 연기해야한다.
- 연기 중 낙하할 경우 선수의 발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시간을 잰다. 단, 의도적으로 누워 있거나 지연하는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한다.
- 체조선수는 심판을 존경해야하고 질서유지는 물론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.
- 평행봉 등 미리 가서 준비할 수 있다. 단체전은 허용된(대회 참가 등록선수와 코치) 체조선수가 도움을 줄 수 있다. 결승전의 경우, 최대 3명(경기에 참가하는 선수, 코치, 허가를 받은 사람)이 준비할 수 있다.
-이외에 모든 감점들은 FIG 남자 채점규칙과 기술규정에 따른다.

□ 지도자 책무와 행등 등과 관련된 감점들

- 지도자는 선수의 스타트 리스트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고 채점규칙과 기술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.
- 지도자는 선수 연기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, 이의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하고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.
- 지도자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- 단체전의 경우 허용된 코치 2명만이 경기장에 참가할 수 있다(팀 감점). 결승전의 경우 1명의 선수가 출전하면 1명의 코치, 2명의 선수가 출전하면 2명의 코치가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(개인 감점).
- 지도자가 심판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**"남자 채점규칙 3.3항 코치의 행동"** 감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.

추가 감점 표	
핸드스프링 점프 착지하지 않을 경우	0.3감점 (D심판) *초등만 해당
양팔 들고 착지 시 손 끝, 팔이 완전히 펴진 상태, 턱을 바로 세우는 등의 미적 자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	매회 0.1감점 (그림 1)
착지 시 팔이 굽혀지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	매회 0.1감점 (그림 2)
연기 시작 전 D1 심판에게 신호를 보낼 때 손 끝, 팔이 완전히 펴진 상태, 턱을 바로 세우는 등의 미적 자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	0.1감점 (D심판, 그림 3)
연기 시작 전, 종료 후 D1심판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때	0.3감점 (D심판)
각 종목별 비틀기 동작 시 다리 겹쳐졌을 때	매회 0.2감점 (그림 4)
연기 시 발끝 펴지 못했을 때	0.1-0.2감점 (그림 5)
물구나무서기 자세에 대한 매회 각도에 따라 감점을 달리 적용한다.	매회 감점(그림 6)



그림 1. 양팔 들고 미적표현 착지자세



그림 2. 착지 후 미적표현 착지자세
(프로텍터를 착용하지 않는 종목일 경우 손끝까지 펴야함)



그림 3 . 연기시작 전 미적표현 자세



그림 4. 비틀기 시 다리 겹쳐짐 0.2감점



그림 5. 연기기 시 발끝 굽혀짐 0.2감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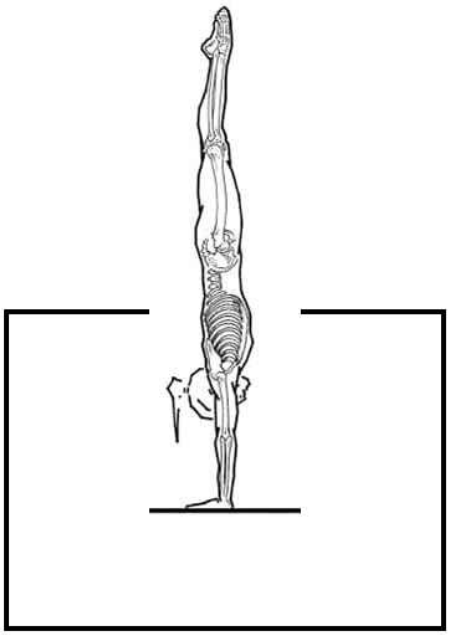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수직선상의 완벽한 물구나무서기 자세
(각도 이탈 감점 11-15도 0.1, 16-30도 0.3)